▌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2호 [2008.12] : 117~150

브라질의 인종차별 현황과 특성에 관한 고찰
: 1990년~2006년 사이의 사회적 지표 및 통계를 중심으로

박 원 복*
Park, Won-Bock

<Abstract>

A Study on Actual Racism in Brazil

Este estudo, intitulado de Um Estudo sobre Atual Situação do Racismo no Brasil e Suas Características por Meio da Análise dos Dados Estatísticos Elaborados entre 1990 e 2006, tem por objetivo entender melhor verdadeiros aspectos do racismo no Brasil atual, por meio da análise de dados relacionados. Para tal, levantamos dados e materiais produzidos pelos órgãos brasileiros da área, sejam governamentais, sejam civis ou estrangeiros. E na primeira parte do estudo, analisamos a breve história do escravo negro que entrou no Brasil, e algumas ideologias e discussões desenroladas em torno do mito chamado "democracia racial" do sociólogo Gilberto Freire. Na segunda parte, analisamos materiais e dados estatísticos a respeito do racismo e preconceito racial no Brasil. Na última parte do estudo, procuramos saber como o governo do Brasil enquadra tal questão e quais as medidas que estão sendo tomadas por ele para combater o problema secular, e tirar conclusões do nosso estudo sobre o assunto, que a nosso ver está profundamente enraizado não só na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브라질)어과
E-mail: brazil21@hanmail.net

consciênciado povo mas também nas instituiçõesdo Brasil. Nossa conclusão final foi de que o racismo no Brasil agora tornou-se institucionale não biológico.

[Key Words: Racismo/ Racismo no Brasil/ Preconceito Racial no Brasil/ Combate ao Racismo]
[: / / /]

Ⅰ. 들어가는 말

1930년대에 브라질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질베르뚜 프레이리(Gilberto Freire)는 브라질의 인종혼혈 문제를 연구하면서 브라질은 '인종적 민주주의(democraciaracial)[1]국가라고 주장하였다. 당시에 인종분리정책과 더불어 여러 면에서 흑백간의 문제가 심각했던 미국은, 브라질이 인종 차별이 없는 인종천국이라고 믿으며 그 예를 연구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브라질은 모든 인종과 민족이 서로 평등한

1) 사실 1889년 공화정이 선포된 이래 브라질 지배층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자국 국민의 분열을 우려하여 인종적 통합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인종적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백인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흑인들을 브라질 국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통합정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어 나온 질레르뚜 프레이리의 인종적 민주주의, 즉 브라질에는 모든 인종과 민족이 조화롭게 살고 있다는 환상은 흑인의 브라질 사회로의 진정한 통합을 늦추거나 외면하게 하고 말았다. 하지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학자인 플로레스땅 페르난지스(FlorestanFernandes), 호제르 바스찌지(RogerBastige,프랑스 인), 옥따비우 이아니(OctávioIanni) 등이 중심이 되어 인종적 민주주의의 허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상태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2003년, 현 집권당인 노동자당(PT) 산하 연구기관인 뻬르세우 아브라무 재단(Fundação Perseu Abramo)이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브라질 국민의 87%가 자국에 인종차별(racismo)이 존재함을 인정한다고 한 반면에 단지 4%만이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2] 또한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 15일자 브라질 일간지 우이스따두지상파울루(O Estado de São Paulo)의 인터넷 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아동 입양을 희망하는 자의 66.5%가 흑인아동을 원치 않으며 이들 입양자의 70%가 백인이라고 밝혔다 한다.[3] 백인계층이 흑인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수치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백인의 경우 거의 다수가 백인 아동을 입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백인아이를 입양아로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입양자의 선택권이지만 뻬르세우 아르바무 재단의 조사와 더불어 이 자료들을 볼 때 우리는

---

2) http://ibase.br/modules.php?name=Conteudo&id=65 (2008.10.15)의 조사를 실은 IBASE라는 기관은 브라질 경제사회 분석 연구소(Instituto Brasileiro de Análises Sociais e Econômicas)이다. 그리고 브라질의 일간지 2006년 8월 7일자 꼬헤이우 브라질리엥스(Correio Brasiliense)기사를 인용하고 있는 브라질 인권기관의 자료(http://www.direitos.org.br/index2.php?option=com_content&do_pdf=1&id=1655)에 의하면 동 조사는 2004년에 실시되었다고 하나 그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이 조사발표 이후 브라질에서는 약 4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인종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확실한 예방조치 및 인종차별철폐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3) http://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81115/not_imp278016,0.php (2008.11.20). 브라질의 경우 인구 조사 시에 응답자의 피부색에 대하여는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말한 것이어서 과학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브라질 지리통계원의 통계자료 역시 이와 같은데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한 인구센서스는 이 기관만이 실시하므로 다양한 기관의 통계를 분석할 수 없음이 한계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하지만 공신력이 있는 다른 기관들의 특정 부분에 대한 자료나 통계가 있을 경우 최대한 이를 활용할 것이다.

질베르뚜 프레이가 말한 '인종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브라질 사회에는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브라질 사람들이 가끔 던지는 말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흔히 브라질 사람들에게 인종편견 얘기를 꺼내면 "(브라질에 인종) 편견은 없어요. (하지만) 흑인은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요(Não há preconceito, negro sabe o seu lugar)"(괄호 안은 역자 첨가)라는 말을 한다.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옥따비우 이아니(Octávio Ianni)는 "애매모호함의 원칙(princípio da ambigüidade)"(Octávio Ianni 1987, 114)이라는 말로 요약하였고 상파울루대학교(USP)의 사회학 교수인 안또니우 세르지우 기마랑이스(Antônio Sérgio Guimarães)는 2001년 10월 13일자 폴랴지상파울루(Folha de São Paulo) 紙와의 인터뷰에서 "교묘하게 유연한 차별(discriminação sutil)"이라고 명명하였다.[4] 즉, 식민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브라질 사회 전반과 국민의식에 광범위하게 뿌리 내린 인종차별을 지목한 것이다.

브라질 국민의 이러한 내적 모순을 간파한 듯 2006년, 유엔의 한 보고서는 "인종적 민주주의는 인종차별이 존재함을 말하지 않으려는 브라질 엘리트층의 이데올로기적 가면이다"[5]라고 전제한 뒤 브라질에는 인종차별이 아직 깊게 뿌리박혀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이 보고서에

---

4) http://www1.folha.uol.com.br/folha/treinamento/menosiguais/xx1310200113.htm. (2008.10.15)

5) 원문보기: "Democracia racial é a máscara ideológica da elite brasileira para não dizer que há racismo," (출처: 브라질의 Adami 법무법인 홈페이지 http://www.adami.adv.br/raciais/48.asp)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위원회 의장인 세네갈 출신의 두두 디에느(Doudou Diène)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는 2005년에 브라질을 방문한 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장한 각종 증거와 분석 결과는 질베르뚜 프레이가 주장한 인종적 민주주의가 하나의 허상이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 허상은 이제 브라질 국민의 이상(理想)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질베르뚜 프레이리의 '인종적 민주주의' 이념 속에 인종천국이라고 알려졌던 브라질이 바로 자국의 국민에 의해, 그것도 87%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은 어떤 이유와 배경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지금까지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이론적 토론을 피하는 대신, 각종 사회적 지수와 통계를 통해 인종차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브라질은 매우 다양한 피부색의 인종과 민족이 살고 있는 관계로 본 논문은 대표적인 사례로써 흑인과 백인 그리고 혼혈(물라토, 메스티소 등)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취하고자 한다.[6)]

Ⅱ. 브라질인들의 인종의식

1) 인종차별의역사와 흑인의 법적 지위

잘 알려진 것이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브라질에 들어온 아프리카 흑인

---

6) 여기서 흑인은,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의 기준에 따라, 순수한 흑인을 포함하여 아프리카계 흑인 후손 및 짙은 갈색의 피부색을 지닌 인종(pardo)을 통칭하는 것으로 하고, 혼혈은 물라토나 메스티소 그리고 까푸주(cafuzo:인디오 + 흑인), 마멜루꾸(mameluco인디오 + 백인) 등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빠르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명기하며 기타 소수민족으로 간주되는 동양계 황인종이나 원주민 인디오의 경우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동 기관의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피부색을 물어 표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피부색에 따른 인종 구분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인종에 따른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내기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들은 1888년에 황금법(Lei Áurea)를 통해 신분해방을 맞이하였다. 그 전후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노예해방이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19세기 내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노예해방 압력이 강하게 이루어지던 1871년 브라질은 흑인노예여성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법(일명 Lei do VentreLivre)을 만들었고 그로부터 14년 뒤인 1885년에는 일명 "60세 법(Lei dos Sexagenários)"를 공표하면서 60세 이상의 흑인 노예들에게 신분해방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노예의 신분해방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1872년경 흑인 노예의 수는 150만 명이었으나 완전 노예해방이 이루어지던 1888년에는 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브라질의 노예해방은 정치적으로 볼 때 19세기 초부터 자유 평등 사상을 주창하던 대내외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노예밀매의 상업적 가치하락 그리고 경제의 중심이 노예를 많이 필요로 하던 사탕수수 재배에서 커피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점 등이 복합적이 작용함으로써 전쟁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노예해방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노예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브라질 국민의 대다수가 인정하듯이, 미국과는 달리 브라질 국민의 다수를 이루는 흑인은 마치 그 나라 국민이 아닌 것처럼 아직까지 소외된 민족으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즉 식민지배기간 동안에 존재했던 노예시스템이, 그 방식만 달리 했을 뿐, 아직도 자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마치 타 국민처럼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통해 분석하기 전에, 우선 현행 브라질 헌법과 각종 법에서 어떤 지위와 신분 보장을 받고 있으며 현실은 어떠한지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988년 브라질 헌법과 그 이듬해에 나온 법 제 7716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자국 내에서의 인종차별 행위자는 보석금을 통한 가석방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법정시효와 관계없이 구속될 수 있다. 이 법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되어 법 제 9459호로 대체되었는데 이 개정법에 따르면 브라질은 인종 혹은 피부색뿐만 아니라 민족(etnia),종교 혹은 국적에 근거한 차별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7] 즉, 흑인을 비롯한 모든 자국 국민은 헌법에 설정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피부색 등에 근거한 차별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 예를 보자. 최근 7년간 브라질 북동부 뻬르낭부꾸(Pernambuco)주의 수도인 헤시피(Recife)광역시에서는 신고 된 인종차별사건 가운데 3%만이 기소되어 최종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8] 게다가 인종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서가 꾸며진 사건들 가운데 13%는 법적 효력을 갖는 기소기간 6개월 내에 기소되지 않아 자연히 사장되었다. 또한 경찰이 인종차별범죄로 인정하여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건들 가운데 34.62%가 검찰에 의해 기소가 취소되거나 죄목이 바뀜으로써 이 사건들 중 25% 만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여기서도 5.56%는 인종차별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

7) http://racismoamb.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7&Itemid=32, (2008.10.2)본 사이트에는 2006년 UN브라질 헌법과 2003년에 새로 개정된 민법은 원주민 인디오들에 의한 시민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존재했던 차별적 규정도 없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주민 인디오들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시민들(cidadãos relativamente incapazes)"로 규정되어 있었다. 브라질 헌법 제 231과 232조에는 인디오들의 사회조직체 및 관습, 언어, 신앙, 전통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들이 점해왔던 토지에 대한 원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8) http://www.universia.com.br/noticia/materia_dentro.jsp?no=30187. 동 조사는 2006년 뻬르낭부꾸 연방대학교(UFPE)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인종적 민주주의의 신화와 법적 절차에서 나타난 인종주의(O Mito da Democracia Racial e o Racismo no Fluxo de Justiça)"를 쓴 Ronaldo Laurentino de Sales Júnior에 의해 실시된 것이다.

분류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69.44%는 모욕죄목으로 재조정, 판결되었다.

이 조사를 실시한 살레스(Sales)는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빼르낭부꾸州만의 것이 아니라 브라질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인종차별적 행위로 고발된 사건의 86.7%가 조서나 취조 과정에 모욕죄로 둔갑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적으로 브라질내의 제도적 인종차별이 얼마만큼 깊은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브라질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옥따비우 이아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Octávio Ianni 1987, 131):

>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보편적 평등의 원칙은 이미 그 자체가 백인이 가지고 있는 인종이데올로기의 한 표현이다. 모든 이들의 평등을 설정하고 인종의 어떤 장애와 증오든 모두 금지시키면서, 법을 만들고 지배를 하는 백인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법에 편견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법이 하나의 인종적 민주주의라고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편견에 대하여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편견을 가지지 않는 편견이 있다[9]. 인종적 편견을 토론하는 것이 그러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백인이 만든 법은 말한다 – 역자 첨가). 백인의 인종 이데올로기 원칙, 즉 브라질이 인종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잊어버리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백인들이 실시한 인구조사에는 사람들의 피부색에 대한 자료가 거의 관심밖에 있는 것이다. 자료를 파괴하거나 생산하지 않는 것은 흑인과 물라토에 대한 백인의 인종적 우세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10]

---

9) 문맥상 의역을 하면,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 자체가 편견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0) 원문보기: (...) o princípio de igualdade universal, conforme está estabelecido na Constituição e leis, já é uma expressão da ideologia racial do branco. Ao estabelecer a igualdade de todos, e proibir quaisquer barreiras e ódios de raça, o branco e legislador e governante toma o dito pelo não dito. Se a lei diz que não há preconceito, que esta é uma democracia racial, fica, portanto, proibido falar em

여기서 자료의 파괴란 노예의 신분해방 직후 당시의 재무장관 후이 바르보자(RuiBarbosa)가 서명한, 1890년 12월 14일자 법령과 1891년 5월 13일자 포고령 29호를 통해, 당시의 브라질정부가 자국에서의 노예제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거한 뒤 폐기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자료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브라질 지리통계원을 통해 10년 단위로 실시되어온 인구조사를 언급한 것으로써, 여기서 옥따비우 이아니는 1910년과 1920년 인구조사에서 인구의 피부색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가 1940년과 1950년의 인구조사에서는 다시 피부색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도표화 되었으며 1960년에는 피부색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 다음에 실시된 1970년 인구조사에서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고 1980년 인주조사에서는 또 다시 조사된 것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그는 다인종 국가에서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이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도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 사이의 실질적인 괴리감과 차별을 없애거나 희석시키려는 백인 입법자들과 통치자들의 이데올로기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11] 그렇기에 그는 '인종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질베르뚜 프레이리의 역사관이 북동부

---

preconceito. Há preconceito de não ter preconceito. Discutir preconceito racial é suscitá-lo. Para cumprir o princípio da ideologia racial do branco – de que o Brasil é uma democracia racial – é necessário esquecer ou minimizar a realidade. Por isso é que os recenseamentos (feitos pelos brancos) conferem pouca atenção a dados sobre a cor das pessoas. Destruir ou não produzir dados é uma exigência da ideologia racial de predomínio do branco sobre o negro e o mulato.

11) 물론 그는 피부색에 대한 자료 조사가 오락가락 한 것이 조사관계자들의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백인 지배층의 자세가 바로 유색인종에 대한 그들의 애매모호한 자세 및 인종이데올로기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례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한다. (Ibid., pp.111-112).

지역주의와 소수 지주들로 지탱되던 구공화국으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며 결국 스스로 브라질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이상한 나라를 표현"(Octávio Ianni 1996, 42-43)[12]하고 말았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그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13]

또다른 사회학자인 까를루스 길헤르미 모따(Carlos Guilherme Mota)도 인종적 민주주의를 외친 질베르뚜 프레이리의 작품들에 대하여 옥따비우 이아니와 같은 시각을 내비친다(Carlos Guilherme Mota 1977, 58-59):

> 수필과 같은 흐름으로 씌어진, 브라질에 대한 고고한 해석을 내린 그(Casa Grande & Senzala - 역자 주)와 같은 작품들은 향토주의적인, 그리고/혹은 "보편주의적인 공식 하에 브라질에서의 지배관계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14]

이처럼 브라질의 대다수 사회학자들은, 헌법과 기타 법들에 의해 보장된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 등이, '인종적 민주주의'라는 환상의 그림자를 쫓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백인지배계층의 술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즉, '인종적 민주주의'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백인 지배층의 의도된 인종차별 및 그것에 영향을 받은 국민의 의식 속엔 이미 인종차별이 깊게 뿌리내려 있음을

---

12) 원문보기: "O que vem depois do escravismo, engenho e patriarcalismo perde nitidez, parece outra coisa, expressa um mundo estranho."

13) 마르크스 좌파 지식인으로 꼽히는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이 한쪽으로 편향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의 저서 브라질의 인종과 사회계급(Raça se Classes Sociais no Brasil)을 통해 역대 백인 정권의 노예관련 자료 파괴 및 잦은 인구센서스 기준 변경을 중심으로 설득력이 있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과 추후에 분석할 각종 자료 및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14) 원문보기: Obras como essa, de alta interpretação do Brasil, produzidas pela vertente ensaística, na verdade encobrem, sob fórmulas "regionalistas" e/ou "universalistas," o problema real é o das relações de dominação no Brasil.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87%에 이르렀던 브라질 국민의 인종차별 인정이 어떤 형태로 잠재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 이유는 차후 여러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내재된 인종 차별의식

2-1) 백인들의 인종관

백인들의 비중이 여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브라질 남부지방의 산따 까따리나(Santa Catarina)주의 수도 플로리아노뽈리스(Florianópolis)에 사는 중ㅡ고등학생(14-23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표본조사[15]에 따르면, 백인학생들은 그들 자신이 "청결하고(asseado)깨끗하며(limpo)위생적(higiênico)이라고 말한 반면에 흑인과 물라토에 대해서는 "더럽고(sujo)나쁜 냄새가 나고(malcheiros) 비 위생적(anti-higiênico)"이라고 응답하였다. 비록 단편적인 대답이었지만, 그들이 연령상 아직 인격형성과 독립된 가치관을 갖기에 어려운 나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대답은 경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사회적 선입견이 그들에게 주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로써 이들은 질의서 말미에다가 흑백 및 혼혈간의 차별에 대하여 "모두가 똑같다(todossão iguais)"라든가 "하느님의 자식들(filhosde Deus)"이라고 응답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이 없음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유색인종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다고

15) 이하 본 장에서 다루게 될 조사 자료들은 옥따비우 이아니의 저서 Raças e Classes Sociaisno Brasil(1987)의 pp.51-109에 실린 것이다. 이 조사는 비록 1955년에 14세~23세의 젊은 중산층 자녀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분석하게 될 1990년~2006년도 각종 통계 자료들의 최종 분석 결과와도 매우 높게 상응률을 나타내고 있다.

답변하였던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모순적인 대답은 흑인들의 가정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어떠한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써 백인들의 정신 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인종에 대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여타 유색인종을 비하하는 선입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백인 학생들에게 백인과 같은 기타 유색인종의 육체적 외관에 대한 옥따비우 이아니의 설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백인의 피부는 "우유색(cor de leite)" 또는 "불그스레한 흰색(branca roseada)"또는 "빨간색(vermelha)"등으로 표현한 반면 물라토들에 대해서는 "누르스름한 색(fula)," "갈색(marrom)," 또는 "커피색(café)"등으로 표현하였고, 흑인의 피부에 대해서는 "어두운 색(escura)," "커피색(café)," "검은 색(negra)"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입술에 대해서도 백인의 경우는 "잘 몰딩 된 입술(lábiosbem moldados)"또는 "델리키트(delicados)"라고 말한 반면에 흑인의 입술에 대해서는 "괴이하다(grotescos)"거나 "거칠다(grosseiros)"라고 표현하였다. 아울러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백인에 대해서는 "약간 웨이브형(ligeiramente ondulado)"이라고 한 반면에 흑인이나 물라토들의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곱슬머리(encarapinhado)"라고 응답하였다. 코 부분에 대해서도 백인은 "세련되고(fino) 곧다(afilado)," "자연스럽다(natural)"또는 "정상이다(normal)"라고 한 반면 흑인에 대해서는 "납작하고(chato)"물라토의 코는 "납작하게 눌린 코(achatado)"라고 대답하였다.

또 이 조사에서 백인과 물라토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27명 가운데 43%가 피부색깔이 구분 요소라고 응답했으며 머리카락은 38% 그리고 입과 코는 각각 12%,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흑인과 물라토를 구분 짓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954명의 응답자 가운데 역시 피부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9%를 차지했으며 머리카락은 31% 그리고 코와 입술은 각각 11%, 9%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백인의 인종적 우월주의가 지배해온 브라질의 역사적 산물이며 아직 브라질 사회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동 조사에서 드러난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또 다른 평가는 그들이 흑인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trabalhador)"이라고 평가하는 데서도 감지할 수 있다. 그들이 흑인을 이처럼 지칭하는 데는 식민시대의 노예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그들이 지적활동이 아닌 막노동을 비롯한 이른 바 3D업종에 적합한 인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백인들에게 지적인 측면에서 여타 인종들과 비교하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흑인과 물라토들에 비해 똑똑하다고 대답한 것이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2-2) 흑인과 물라토의 자기평가와 對 백인관

전체 브라질 인구의 5.4%와 39.9%를 각각 차지하는 흑인과 물라토들의 자기 분석을 살피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의 인종관은 한마디로 기를 쓰고서라도 백인이 되고자한다는 것이다. 일명 흑인 혹은 혼혈의 자발적인 '백화(branqueamento)'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브라질 역사상 백인들의 뿌리 깊은 우월주의가 얼마만큼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옥따비우 이아니의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물라토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흑인과 혼동되는 것을 완곡히 거부한다.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그는 등기소에 반드시 "혼합색 피부(cor mista)"를 지닌 사람으로 등록한다. 또한 흑인 남성의 경우도 재산이 없거나 직업이 변변치 못할 때에

흑인 여성과의 결혼을 대체적으로 수용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있을 때는 십중팔구 백인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아울러 “검은 색 피부”라거나 “유색인”이라는 말은 수용하지만 결코 “네그루(negro)”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흑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클럽에 가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흑인 웨이터의 서빙을 받으며 식사하는 것도 꺼린다. 게다가 집안이 좋은 흑인 가정의 경우 자녀들을 위해 백인 가정부나 유모를 고용한다. 이처럼 흑인의 경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물라토보다 강하다.

한편 물라토들의 흑인에 대한 시각은 정확히 찾아내기 힘들다. 그들은 한때 노예 신분을 지녔으며 지금은 사회의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흑인의 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소망하는 백인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인을 나쁘게 평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자신을 흑인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중산층 이상의 일부 물라토 경우는 퓨리터니즘적인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흑인이든 물라토이든 그들 모두는 백인 사회로의 진입을 추구한다. 이들은 보편적으로 정당가입이나 자유직과 전문직을 추구하면서 백인들과 공존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브라질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분상승전략(또는 백인 사회로의 진입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구 등 스포츠를 통한 사회-경제적 신분 상승전략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스포츠에 있어서 물라토나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축구선수들 대다수가 흑인이거나 물라토인 것이 그 증거 중 하나이다. 이것은 흑인이나 물라토 등 소외계층이 역으로 자신을 스스로 ‘백인화’하며 ‘탈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흑인과 물라토의 “백인화 (또는 유럽화)”는 인종교

배의 문제이지 본인 스스로가 원한다고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이러한 바람 속에는 지배계급으로서 백인들이 누리는 사회 경제적 특권에 대한 염원과, 더디게 이루어지는 "백인화" 및 "사회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배어있다. 그래서 백인을 볼 때 백인 그들의 핏줄에도 흑인의 피가 흐른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소망하는 "백인화"는 식민지 지배시절부터 백인들이 추구해온 "유럽화", "야만족의 서구화"와는 달리, 흑인들은 작금의 사회적 불평등, 즉, 백인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와 조건에 걸맞은 환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곧 흑인이든 물라토이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처럼 유색인종이, 지배계층인 백인들이 향유하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으로의 상승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는 백인 사회에의 종속이라는 현실인식과 그에 대한 불만이 함께 묻어있는 것이다.

물론 그 저변에는 백인주도의 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욕구와 그에 따른 사회적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다. 이를 위해 흑인과 물라토들은, 백인계층이 암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어느 선까지 도달하기 위해, 백인의 행동양식을 모방하는 등 그들과의 공존 방식 등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하며 생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식 있는 브라질 인권운동가들이 흔히 말하듯이, 브라질에서의 인종에 대한 편견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상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그들 스스로의 의식화가 시급하다는 자성론인 것이다. 이 점에서는 흑인이든 물라토이든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신분상승의 지름길은 교육수준의 향상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으며 특히

흑인들의 경우 백인과 물라토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그들과 다를 바 없고 또 예술적인 면에서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옥따비우 이아니의 지적대로, 그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문제점이 바로 자신의 지적 능력 향상에 '게으른' 자신들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흑인이나 물라토들 스스로가 백인에 비해 자신들이 "육체적 노동"에 더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41%가 백인이 더 지적이며 38%가 물라토 그리고 나머지 21%가 흑인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성적 관찰은 설득력을 갖는다.[16]

Ⅲ. 인종차별의 현황과 특성

1)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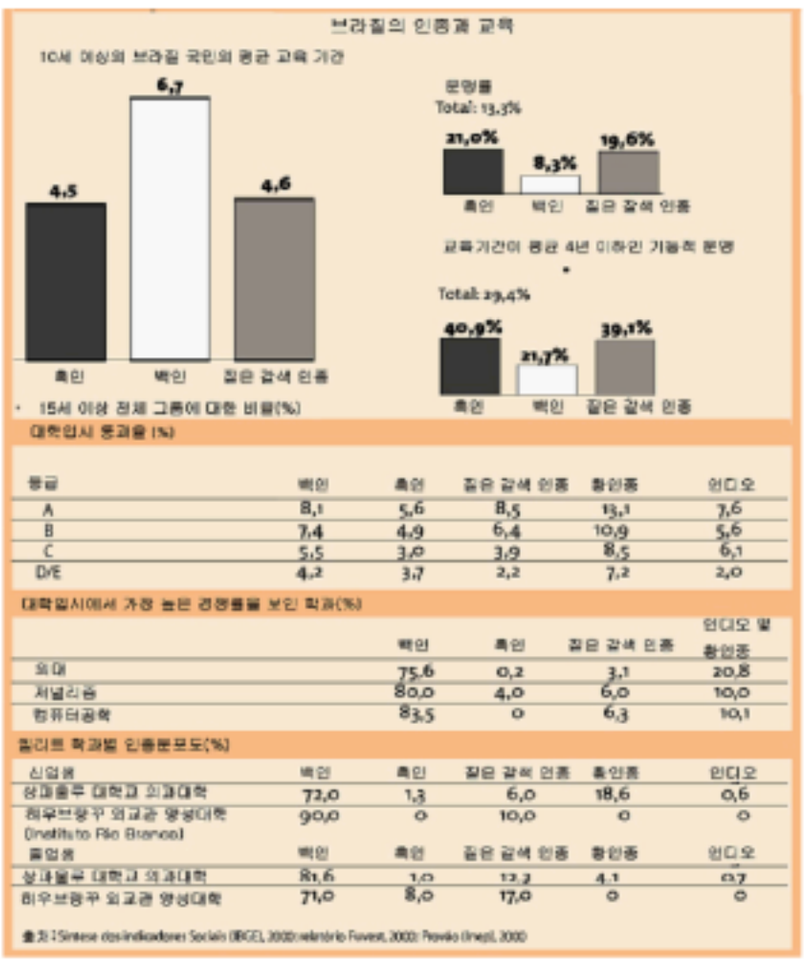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종차별의 주 대상인 흑인들 자신이 신분상승과 인종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아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11월에 발표된 브라질 지리 통계원(IBGE)의 자료에 의하면 인종적 불평등 사례는 교육부문에서도 크게 드러나 흑인들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만 같다.

동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의 문맹률은 13.3%에 달한다. 이러한 고문맹률 가운데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1.0%[17]이며 백인은 8.3% 그리

16) Idem., ibidem.

17) 참고로 1888년 황금법으로 신분해방을 맞은 흑인들 가운데 단지 0.9%만이 비문맹자였다고 한다.

고 짙은 갈색 피부의 인종 경우 19.6%를 차지하였다.[18)]



브라질의 인종별 교육

10세 이상의 브라질 국민의 평균 교육 기간

문맹률

Total: 13,3%

교육기간이 평균 4년 미하인 기능적 문맹

Total: 29,4%

• 15세 이상 전체 그룹에 대한 비율(%)

대학입시 통과율 (%)

등급	백인	흑인	짙은 갈색 인종	황인종	인디오
A	8,1	5,6	8,5	13,1	7,6
B	7,4	4,9	6,4	10,9	5,6
C	5,5	3,0	3,9	8,5	6,1
D/E	4,2	3,7	2,2	7,2	2,0

대학입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

	백인	흑인	짙은 갈색 인종	인디오 및 황인종
의대	75,6	0,2	3,1	20,8
저널리즘	80,0	4,0	6,0	10,0
컴퓨터공학	83,5	0	6,3	10,1

엘리트 학교별 인종분포도(%)

신입생	백인	흑인	짙은 갈색 인종	황인종	인디오
상파울루 대학교 의과대학	72,0	1,3	6,0	18,6	0,6
히우브랑꾸 외교관 양성대학 (Instituto Rio Branco)	90,0	0	10,0	0	0
졸업생	백인	흑인	짙은 갈색 인종	황인종	인디오
상파울루 대학교 의과대학	81,6	1,0	12,2	4,1	0,7
히우브랑꾸 외교관 양성대학	71,0	8,0	17,0	0	0

출처 : Sintese dos Indicadores Sociais (IBGE), 2000; relatório Fuvest, 2000; Provão (Inep), 2000

이 도표에서 보듯이 짙은 갈색의 인종을 흑인으로 간주할 경우 흑백

18)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동 인구센서스에서 IBGE는 짙은 갈색피부의 인종을 흑인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에서는 짙은 갈색 인종을 따로 분류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옥따비우 이아니의 백인 지배층에 의한 통계적 차별 논리를 입증하는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간의 문맹률 차이는 40.6% : 8.3%로 급격히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업기간이 총 4년 이하인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흑인과 갈색피부의 인종을 흑인그룹으로 통합할 경우 흑인의 문맹률이 자그마치 80%, 백인의 경우는 21.7%를 나타낸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전체 문맹률과 상호 연관 지어서 관찰해볼 때 그만큼 흑인들의 학업 중도 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19]

또한 10세 이상의 학업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흑인은 4.5년인 반면에 백인은 6.7년에 이르며 짙은 갈색 인종의 경우는 흑인과 거의 같은 4.6년을 나타냈다. 그리고 15세에서 17세 사이의 흑인청소년들 가운데 단지 36%만이 중등교육을 마쳤거나 졸업반 상태에 있는 데 비하여, 비흑인 청소년들의 비율은 60%에 달한다. 또 대학 등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흑인들은 18.4%가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에 비흑인들은 57.2%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문맹률과 학업 기간의 이러한 차이는 곧바로 대학 진학 부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도표에서 보듯이 대학입시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별 신입생 비율을 볼 때 백인이 평균 80%가량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짙은 갈색 피부의 학생을 포함한 흑인 학생은 단지 4.2%만을 차지했다. 특히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상파울루 대학교 의과대학의 진학률 경우, 백인이 총 신입생의 72%를 차지한 반면에 짙은 갈색 피부의 학생을 포함한 흑인 전체 학생은 불과 7.3%를 나타내어 백인의 엘리트 학과 진학률이 흑인에 비해 거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교관이 되는 지름길인 히우브랑꾸 외교관 양성학교 신입생 비율에서도

---

19)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IBGE에는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후에 볼 흑인의 고용과 소득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사료된다.

20) http://www.cedefes.org.br/new/index.php?conteudo=materias/index&secao=3&tema=32&materia=320(2008.10.22)

백인은 90%를 차지한 반면에 순수 흑인은 0%이며 짙은 갈색 인종이 10%를 차지하였다. 즉 흑인들은 백인들과는 달리, 최고 일류대학을 졸업한 뒤에 높은 임금과 출세의 보장 그리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고등교육에 거의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사회적 신분상승 및 고소득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적 장치가 모두 백인의 차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01년 10월 13일자 폴랴 지 상파울루 紙지의 인터넷판에 실린 IBGE의 또 다른 자료[21]에 의하면 1990년대 내내 브라질 전 지역에서 문맹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흑인과 백인간의 문맹률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종 분포도에서 흑인이 전체 국민의 근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는데 예를 들면 유럽계 백인이 많은 산따 까따리나 주의 경우 전체 주민의 8.5%만이 흑인인 반면에 북동부의 세르지삐 주 경우에는 흑인의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동부 지역에 속하는 상파울루의 경우는 흑인 비율이 26.8%를 나타냈다. 이러한 인종 분포도의 차이만큼이나 문맹률에서도 각 지역별로 큰 격차를 드러냈는데 예를 들면 브라질 전체를 두고 볼 때 백인의 문맹률은 8.3%인 반면에 흑인의 문맹율은 21%를 나타냈으며 백인은 평균적으로 흑인들보다 2.5년 정도 더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22]

---

21) http://ww1.folha.uol.com.br/folha/treinamento/menosiguais/xx1310200115.htm. (2008.10.15).

22) 2001년 10월 13일자 폴랴 지 상파울루 지의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 IBGE와 Pnad의 자료를 근거로 연구를 한 결과 유치원에 다니는 7세 이상의 아동 중 흑인아이가 63.5%인 반면에 백인아이는 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엔 흑인아이가 43.1%인 반면에 백인아이는 56.3%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첫 번째 수치에 대하여, 동 자료를 분석한 까를루스 샤가스 재단의 심리학자 풀비아 호젱베르그(FúlviaRosemberg)는, 이미 초등교육과정에 입학해있어야 할 연령대의 흑인어린이들이 초등학교로 진학할 만큼 학습 능력이 되지 않

여기서 이러한 상황들이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에서의 흑백간 불균형과 편차가 곧바로 고용과 소득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고용과 소득

브라질 사람들은 흔히 "브라질에서는 가난에도 색깔이 있다 (A pobrezano Brasiltem cor)"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브라질은 피부색에 따라 소득(고용을 포함)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교육과 연계하여 고용과 소득의 관계를 살펴보자.

2006년 IBGE가 브라질의 주요 6개 도시(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벨로리종찌, 살바도르, 헤시피, 뽀르뚜알레그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23] 10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교육과 임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백인의 경우 학력으로 인한 임금 혜택이 자그마치 2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흑인 남성의 경우는 학력으로 인한 임금 혜택이 단지 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백인들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R$1,728.38인 반면에 똑같은 학력을 가진 흑인의 경우는 불과 R$899.64인 것으로 드러나, 이 경우에도 임금의 격차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불평등 사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6개 지역의 성인 남성의 경우 백인은 평균

아서 유치원에 남게 된 것이 그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원인은,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하여 흑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이른 바 "인종적 페시미즘"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녀는 흑인들의 이러한 심리 현상은 백인에 비하여 흑인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편견이 오랜 세월동안 짓누른 결과라고 말했다. http://www1.folha.uol.com.br/folha/treinamento/menosiguais/xx1310200115.htm(2008.10.15)

23) http://oglobo.globo.com/economia/mat/2006/11/17/286706444.asp(2008.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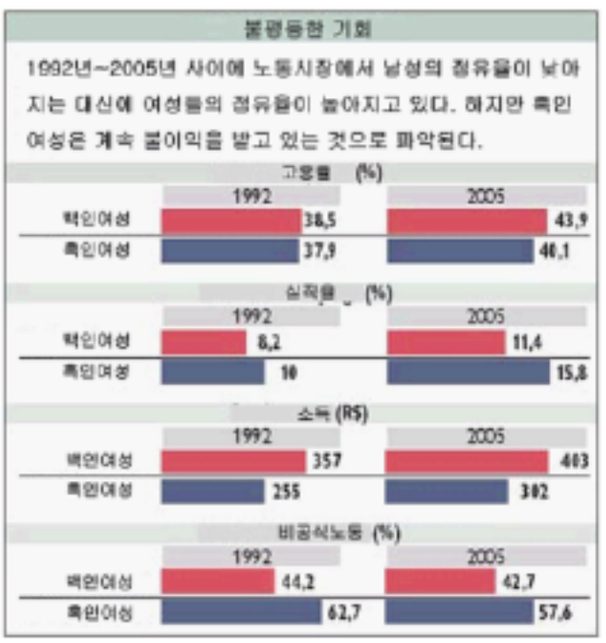
8.7년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흑인과 짙은 갈색의 남성 경우 7.1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고용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IBGE의 자료에 의하며 국내 최대 민간은행 5개사의 백인 여성 고용률은 43.7%이고 백인남성 고용률은 37.7%인 반면에, 흑인 남성의 고용률은 10.6%,흑인여성의 고용률은 8.1%에 불과하다고 한다. 해당 은행들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써 흑인 채용 응시자들의 낮은 실력을 꼽았지만 동 조사에 의하면 채용된 흑인 직원들의 학력이 백인들보다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백인들에 비해 더 낮았고 또 진급 역시 더 더뎠다고 한다. 또한 관리직에는 흑인들이 거의 없는 반면에 몇몇 백인들의 경우 대학 졸업 학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급 자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노동검찰국은 이들 은행에 흑인고용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이들 은행들도 수용하였지만 2006년 현재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결과가 없으며 흑인을 위한 쿼터제도 제안했으나 이것은 아예 거절되고 말았다고 한다.

한편 브라질 노동 시장은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2년-2005년 사이에 전국 가정 표본조사(Pnad)를 바탕으로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에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24],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일 먼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가 눈에 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99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즉 13년 동안의 시차가 있었지만 흑인여성과 백인여성의 노동시장점유율 차이는 동 기간에 더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흑인여성이 37.9%에서 40.1%로, 2.1% 증가한 반면에 같은 기간 백인여성의 경우는 38.5%에서 43.9%로, 5.4%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물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을

24) Idem., ibidem.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의식 변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실직률에서도 동기간에 백인여성은 8.2%에서 11.4%로 늘어나 3.2%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에 흑인 여성의 실직 경우는 10%에서 15.8% 즉 5.8% 증가함으로써 역시 백인여성보다 높은 실직률을 보였다.



한편 이번에 함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직책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월급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흑인 여성은 흑인 남성뿐만 아니라 백인 여성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즉 흑인 여성의 월급은 백인여성이 받는 월급(R$403)보다 낮은 R$302를 받고 있으며, 남자들의 경우 백인 남성은 R$603의 월급을 받는 반면에 흑인 남성은 R$383을 받음으로써 인종적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흑인여성은 백인 남성의 소득에 5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별 소득 격차의 문제점이 보다 심각한 곳은 바로 청소년 계층의 임금문제이다.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는 앞서 살펴본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청소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15세-24세의 청소년 3,400만 명 가운데 12.2%가, 개인당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1/4밖에 되지 않는 극빈층에 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약 67%가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하였으며 30.2%는 학업은 커녕 일도 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청소년들의 71%가 흑인이라는 것이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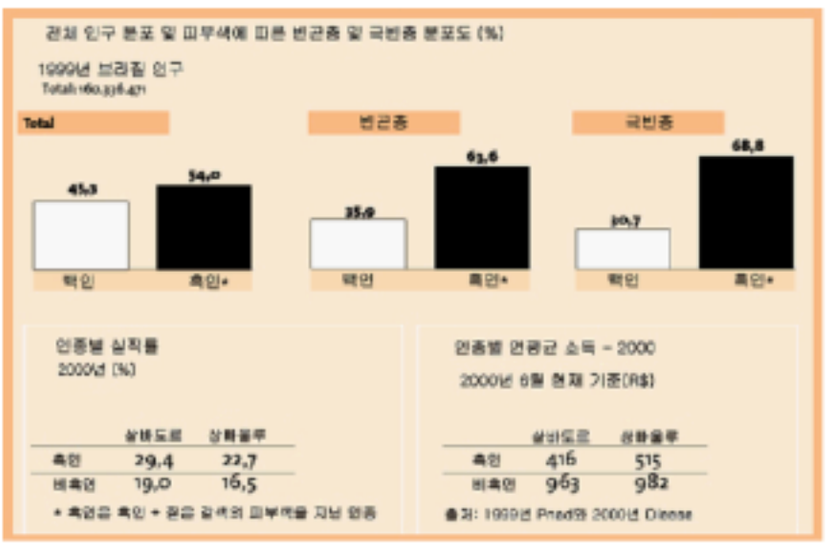
아동노동부문에서도 이러한 인종적 차별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국제노동기구가 2005년 브라질 전국가정표본조사 자료를 근거로 연구, 발표한 바에 따르면[26] 10~13세 백인 소년들 경우 6%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반면에 동 연령의 흑인소년들 경우 8.8%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소녀들을 기준으로 할 때 흑인소녀들 경우는 3.4%인 반면에 백인소녀들의 비율은 2.4%였다. 그리고 2005년, 동 연령대의 아동들 가운데 23.8%의 흑인남아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한 반면, 백인 아동들은 16.4%가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지난 2001년 브라질 정부가 남아공화국에서 개최된 UN인권문제 회의에 제출한 자료[27](1999년 기준으로 한 아래 도표 참조)를 보면 흑인이 브라질 빈곤층의 63.6%를 차지하는 반면에 백인은 35.9%를 차지하였으며, 극빈자의 경우도 흑인은

---

25) Idem., ibidem.
26) Idem., ibidem.
27) http://www1.folha.uol.com.br/folha/treinamento/menosiguais/xx1310200115.htm (2008.10.15)

68.8%를 차지한 반면에 백인은 30.7%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빈곤층이란,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의 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이 기본 식료품 비용에 의복, 주거, 교통비 등 개인이 최소 비용을 합한 액수(보통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며 극빈자의 경우는 소득이 기본 식료품 비용에도 못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최저임금의 절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흑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북동부의 바이아 주 수도인 살바도르(Salvador)의 경우 2000년 연평균 소득이 흑인의 경우 R$416인 반면에 백인은 R$963을 나타냄으로써 백인의 소득에 대비한 흑인의 소득은 약 43%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흑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파울루의 경우는 흑인의 연평균 소득이 R$512인 반면에 백인은 R$982를 나타내어 백인의 소득 대비 흑인의 소득

은 약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 구성에서 흑백의 비중에 상관없이 양 인종의 소득 격차는 거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두 도시의 실업률에도 반영되어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살바도르에서의 흑인 실직률이 29.4%인 반면에 백인의 실직률은 19%이며 상파울루의 경우에는 흑인의 실직률이 22.7%인 반면에 백인의 실직률은 16.5%였다. 즉 흑인이 많은 살바도르에서 흑인의 실직률이 높은 것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백인이 많은 상파울루에서 백인의 실직률이 낮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적 차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육과 소득 등에서 예상할 수 있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흑인들이 종사하는 직업군도 백인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9월 현재 노동수첩을 가지고 있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백인이 59.7%,흑인이 39.8%를 차지하였다.[28] 아울러 일명 3D업종으로 꼽히는 건설노무자의 경우 흑인남성과 짙은 갈색의 남성이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사업무(자가용 운전기사, 정원관리사 등)에는 57.8%가 이들이었다.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정식근로자의 경우 59.7%가 백인이었던 반면에 흑인과 짙은 갈색피부의 사람은 39.8%에 불과하였다(기타 아시아계 등은 제외). 브라질의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수첩이 없는 비 정식 근로자들의 경우 각종 근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흑 백 간의 고용과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러한 흑백간의 대비는 1888년 노예해방이후 지배층이 흑인에게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여건조차 마련해주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이들 흑인 계층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28) http://oglobo.globo.com/economia/mat/2006/11/17/286706444.asp (2008.10.22).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보건 및 의료

브라질 보건부의 흑인인구 보건 실무 위원회(Comitê Técnico de Saúde da População Negra do Ministério da Saúde) 위원장인 아나 꼬스따(Ana Costa)에 따르면 흑인 혹은 짙은 갈색 피부의 아동 경우 전염병과 기생충에 의해 야기되는 병 때문에 5세가 되기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이 같은 또래의 백인 아동에 비하여 60%나 높으며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 흑인 또는 짙은 갈색 피부의 아동이 백인 아동에 비해 무려 90%나 높다고 밝혔다.[29]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하여 아나 꼬스따는 흑인 인구가 빈곤 또는 극빈층 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겪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의료기관의 진료 소홀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 "흑인들이 아직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이와 같은 문화를 파괴하지 못했으며 이 모두가 현재의 단일보건시스템(SUS)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 불평등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 분야에서도 – 역자 첨가)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하는 것을 감출 수는 없다"[30]

즉, 인종적 제도적인 차별이 보건행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

29) http://ww1.folha.uol.com.br/folha/treinamento/menosiguais/xx1310200111.htm. (2008.10.15)

30) http://www.folhadoampa.com.br/classic/comments.php?id=6993_0_10_C (2008.10.15) 원문보기: "Os negros são discriminados ainda, nós não desconstruímos esta cultura e isso se reflete no SUS. Sem dúvida ue problema da iniqüidade determinado pela condição social é importante mas não dá para escamotear que existe o racismo."

이처럼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 제도적 차별로 심화 되고 있다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오스발두 끄루스 재단(Fundação OsvaldoCruz)이 2006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31] 리우데자네이루 시(市)의 경우 1999-2001년 사이에 동 시의 공공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한 여성들 가운데 분만 시에 마취서비스를 받지 않은 백인산모는 5.1%였던 반면에 마취서비스를 받지 않은 흑인산모의 경우는 11.1%를 차지하였다. 헤시피 보건청의 보건감시국에 근무하는 소니 산뚜스의 말처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아야 할 의료진들의 의식 속에는 "흑인들이 고통을 잘 참는다"라는 인종차별적 시각이 묻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AIDS와 관련해서도 아나 꼬스따는, 2000년 조사에 근거하여, 백인남성이 에이즈 감염으로 사망한 비율이 10만 명 당 22.77명이었던 반면에 흑인남성의 경우 41.7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에이즈로 사망한 흑인이 백인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흑인에 대한 사회적 배척과 소외에 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브라질의 관계 당국도 시인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 26일 흑인의 보건문제와 관련하여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당시의 보건부 장관 아제노르 알바리스(AgenorÁlvares)는 브라질의 정치 경제 중심지역인 남동부를 대상으로 산모의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흑인산모의 경우 10만 명 당 4.79명이 사망한 반면에 백인산모는 2.09명이었으며, HIV 감염에 의한 여성의 사망률에서는 흑인 여성이 10만 명 당 12.29명인 반면에 백인여성의 경우 5.45명을 나타냈다고 말했다.[32] 이어 그는 흑인에 대한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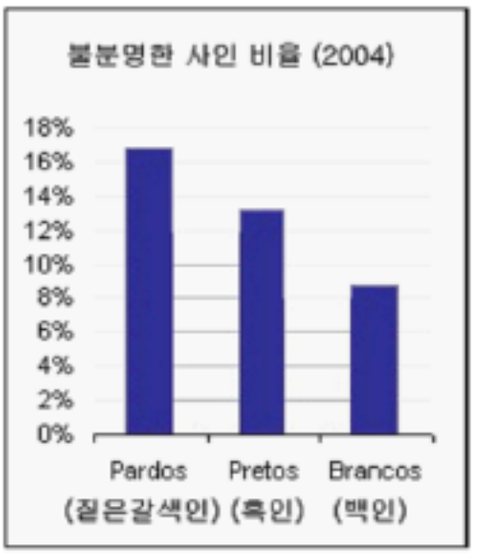
31) http://www.direitos.org.br/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71&Itemid=2(2008.10.15).

32) http://www.direitos.org.br/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71&Itemid=2(2008.10.15).

검진과 비흑인에 대한 의료검진이 서로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그와 같은 인종적 차별은 불완전한 처방 및 진료와 더불어 의사들이 흑인환자와의 육체적 접촉을 꺼리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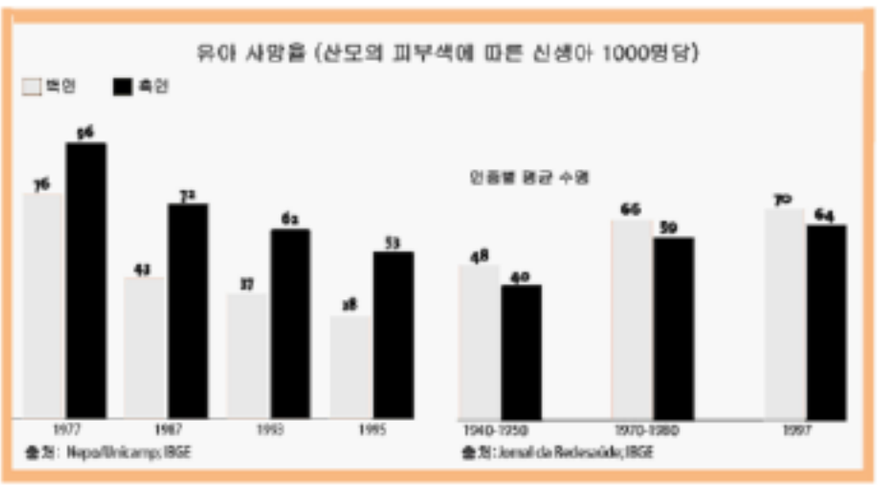
아울러 또다른 예를 보자. 2004년을 기준으로 불분명한 사인(死因)으로 사망한 경우(아래 도표 참고)를 보면,[33] 흑인의 경우 13.2%이고 짙은 갈색의 피부(pardo)를 지닌 사람의 경우는 16.8%인데 반하여 백인은 8.7%에 그쳤다. 게다가 브라질 보건부가 발표한 2003년 자료에 의하면 흑인 혹은 짙은 갈색 피부의 5세미만 어린이의 불분명한 사인에 있어서도 같은 또래의 백인 어린이 보다 두 배나 높게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브라질 경우도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발급되는 사망진단서나 확인서에는 사인(死因)이 적혀있는데 이처럼 브라질의 경우 흑인들의 사인이 불분명한 것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의사들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흑인들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문제에 있어서도 외면을 받거나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33) idem. ibidem.



한편 보건의료시스템의 수혜에 있어서 인종별 격차가 크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유아 사망률과 일반 국민의 평균수명에서 엿볼 수 있다. 만 1세 이하의 나이에 사망한 유아들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34] 백인 신생아의 경우 1977년에 1000명당 76명에서 1995년에는 28명으로 줄었으나 흑인 신생아 경우는 1000명 당 96명에서 53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유아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흑백간의 차이는 오히려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종별 평균 수명에서도 1940~50년대의 백인 수명은 평균 48세였던 반면에, 1940-50년대에 흑인은 40세였던 것이 1997년에는 각각 70세에서 64세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기서도 흑백간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4) http://ww1.folha.uol.com.br/folha/treinamento/menosiguais/xx1310200111.htm. (2008.10.15).



지금까지의 자료를 분석해볼 때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흑백 간의 불평등 현상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브라질 전체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백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인종적 편견(예, 흑인들을 진찰하는 백인의사들이 환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꺼리는 점, 백인은 청결한 반면에 흑인은 더럽고 불결하다는 의식 등)과 사회적 통념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념과 의식이 각 사회제도(법률 포함)에 스며들어 있음으로써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짙은 갈색 인종 포함)이 오히려 소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Ⅳ. 나가는 말

이제까지 각종 통계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저학력에 저임금을 받는 흑

인이 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인종차별과 더불어,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각종 특권을 유지하려는 지배층들의 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 속에 자리잡음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인종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선별하여 분석한 자료들이 충분치 않거나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 노동, 임금, 보건 등 인간의 기본권에서마저 가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룰라정부가 많은 찬반논란 속에서도 각 사회분야에 소외받는 계층의 권익보호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제 2기 집권을 시작한 룰라정부는 그동안 흑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차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물론 이전의 정부들이 동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여타 전(前) 정부와 다른 점은 현존하는 브라질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있다. 즉 현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미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깊게 자리 잡은 국민의 의식을 바꾸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미 공고해진 제도적 차별을 퇴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그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첫째, 흑인 자신이 품고 있는 인종적 페시미즘을 걷어내기 위해 그리고 흑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바라보는 백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초등교육에서 아프리카의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정책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브라질 인권특별청(Secretaria Especial de Direitos Humanos)측은 2006년, 교육부와 연계하여 브라질리아 대학(Universidade de Brasília)에서 향후 약 45,000명의 교사를 교육시키는 계

획을 시행중에 있으며 재원도 확보해두었다.

둘째, 그동안 법을 통해 구호만 외쳤던 단계를 벗어나 흑인들을 실질적으로 브라질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여 통합시키기 위하여 일명 "우대조치(Açõesafirmativas)"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 내의 인종차별을 실질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이 계획은, 전직 대통령이자 상원의장이었던 주제 사르네이(JoséSarney)에 의해 1999년 제안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04년 연방 상 하원을 통과한 PLS 650 법령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각 국공립대학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흑인을 중심으로한 소수민족에게 일정한 비율의 자리 및 고용을 예약 제공하는 것이다. 그 쿼터는 각 해당학교와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바, 2003년에 브라질리아 대학(Unb)이 앞장서서 흑인학생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한 이후 2006년 현재 전국 국공립대학 13개에서 실시되고 있다.

셋째, 2003년에 룰라 정부는, "인종 평등 촉진 특별청(SEPPIR: SecretariaEspecialparaa PromoçãodaIgualdadeRacial)"라는 대통령 직속 기관을 설치하였는바, 동 기관은 인종차별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써 시, 주, 연방 차원의 모든 관련자료 및 데이터에 인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옥따비우 이아니가 말한 "애매모호함의 원칙"을 브라질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차별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들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한 헌법과 수많은 법조문으로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인종차별을 종식시킬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며 브라질 각 사회계층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좌우간 룰라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과감하면서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말에 기대를 걸어보면서, 인종 간 혹은 민족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길이 진정한 인종적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길임을 새삼 강조해본다. 왜냐하면 다른 피부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종 혹은 민족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브라질 사회와 문화에 엄청난 재산이자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철(2005),「브라질의 인종적 민주주의와 흑인운동」,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1 No.1.

_____(2005),「브라질의 인종관계와 인종차별철폐 법안」, 이베로아메리카, Vol.7 No.1.

우석균(2002),「라틴아메리카의 문화 이론들: 통문화, 혼종문화, 이종혼형성」,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5 No.2, pp.283~294.

Alfredo Guimarães, Antônio Sérgio(2004), "Preconceito de Cor e Racismo no Brasil", in Revista de Antropologia(vol.47, nº1), São Paulo: EDUSP.

Bastide, Roger, Fernandes Florestan(1959), Brancos e Negros em São Paulo, São Paulo: CEN.

Fernandes, Florestan(1965), A Integração do Negro na Sociedade de Classes, São Paulo: Dominus/EDUSP.

Freyre, Gilberto(1969), Casa Grande & Senzala: formação da família brasileira sob o regime de economia patriarcal, Rio de Janeiro: José Olympio, 14ª ed.

_____(1961), Sobrados e Mocambos: decadência do patriarcado

rural e desenvolvimento do urbano, Rio de Janeiro: José Olympio, 3ª ed.

Ianni, Octávio (1987), Raças e Classes Sociais no Brasil, São Paulo: Brasiliense, 3ª ed.

_____ (1996), Idéia de Brasil Moderno, São Paulo: Brasiliense.

Lambert, Jaques (1967), Os Dois Brasis, São Paulo: CEN, 2ª ed.

Leite, Ilka Boaventura (org.) (1996), Negros no Sul do Brasil: invisibilidade e territorialidade, Florianópolis: Letras Contemporâneas.

Mota, Carlos Guilherme (1977), Ideologia da Cultura Brasileira (1933-1974), São Paulo: Ática, 3ª ed.

Ribeiro, Darcy (1991), Os Brasileiros: 1. Teoria do Brasil, Petrópolis: Vozes, 11ª ed.

Rosenfeld, Anatol (2000), Negro, Macumba e Futebol, São Paulo: Perspectiva.

Skidmore, Thomas E. (1974), Black in White: race and nationality in brazilian thought, New York: Oxford Univ. Press.

Sodré, Nelson Werneck (1990), Formação Histórica do Brasil, Rio de Janeiro: Bertrand, 13ª ed.

_____ (1989), Síntese de História da Cultura Brasileira, Rio de Janeiro: Bertrand, 16ª ed.

Teles, Edward (2003), Racismo à brasileira: uma nova perspectiva sociológica, Rio de Janeiro.

Turr, Cleusa e Venturi, Gustavo (1998), Racismo Cordial, São Paulo: Ática, 2ª ed.

▌논문투고일자 2008년 11월 4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11일